



PRESS RELEASE

배포일자: 2026년 9월 3일(목)
관련자료: 사진자료

제네시스 마그마 GT 콘셉트, '2026 IDEA 디자인 어워드' 은상 수상

- 마그마 GT 콘셉트 자동차운송 부문 은상 수상
- G90 웅백 콘셉트와 마그마 UI 디자인 각각 자동차운송 및 디지털 인터랙션 부문 본상 수상
- 럭셔리 고성능 디자인에 대한 제네시스의 비전과 기술 혁신 역량 입증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가 '2026 IDEA 디자인 어워드(International Design Excellence Awards)'에서 독보적인 디자인 경쟁력과 기술 혁신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제네시스는 '마그마 GT 콘셉트(Magma GT Concept)'로 자동차·운송(Automotive & Transportation) 부문 은상을 수상했으며, 'G90 웅백 콘셉트(G90 Wingback Concept)'와 '마그마 UI 디자인(Magma UI Design)'로 각각 자동차·운송 및 디지털 인터랙션(Digital Interaction) 부문 본상(Finalist)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제네시스 마그마 GT 콘셉트 (은상, 자동차·운송 부문)

마그마 GT 콘셉트는 제네시스의 디자인 철학인 '역동적인 우아함(Athletic Elegance)'을 고성능 스포츠카의 비율과 공기역학적 특성을 고려해 대담하게 재해석한 콘셉트 모델이다. 낮고 넓은 차체와 유려하게 흐르는 루프라인,



PRESS RELEASE

후방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보트 테일 형태의 캐빈을 통해 안정적인 자세와 응축된 에너지를 표현했다. 과도한 디자인 요소 대신 절제된 표면과 정교한 디테일을 강조해 제네시스만의 럭셔리 고성능 비전을 구현했다.

현대차그룹 CCO(Chief Creative Officer, 최고 크리에이티브 책임자) 겸 CDO(Chief Design Officer, 최고 디자인 책임자) 루크 동커볼케 사장은 “마그마 GT 콘셉트는 제네시스 퍼포먼스 비전의 정점이며, 진정한 모터스포츠를 향한 브랜드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제네시스는 마그마 GT 콘셉트의 은상 수상에 이어 두 부문에서 본상을 추가로 차지하며, 브랜드의 디자인과 기술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제네시스 G90 왕백 콘셉트 (본상, 자동차·운송 부문)

G90 왕백 콘셉트는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세단 G90 를 그랜드 투어러 왜건으로 재해석해 마그마 프로그램의 럭셔리 고성능 비전을 제시한 모델이다. G90 의 긴 휠베이스에 섬세하게 늘린 루프라인과 파라볼릭 프로파일을 결합해 강인하면서도 우아한 실루엣을 완성했다. 넓은 휠 아치와 대형 하단 공기 흡입구, 리어 윙, 디퓨저 구조 등 GT 내구 레이스카에서 영감을 받은 공기역학적 요소로 역동성과 절제된 품격을 함께 구현했다.

제네시스 마그마 UI 디자인 (본상, 디지털 인터랙션 부문)

제네시스 마그마 UI 디자인은 브랜드 최초의 고성능 마그마 양산 모델인 GV60 마그마에 적용된 디지털 인터페이스다. 정교한 크로노그래프 그래픽에 OLED 디스플레이가 가진 깊이 있는 블랙 컬러와 절제된 마그마 오렌지 컬러를



PRESS RELEASE

조합해 트랙 및 주행에 필요한 핵심 정보의 시인성을 높이고 운전자의 몰입감을 강화했다. 마그마 전용 모드에서는 기울어진 서체와 역동적인 모션 그래픽을 통해 속도감과 강렬한 에너지를 표현했다.

이번 2026 IDEA 디자인 어워드 수상은 자동차 디자인의 새로운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제네시스의 의지를 보여주는 성과다. 제네시스는 이번 수상으로 럭셔리 고성능 디자인과 디지털 사용자 경험 전반에서 글로벌 혁신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미국 산업디자인협회(IDSA, Industrial Designers Society of America)가 주관하는 IDEA 디자인 어워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디자인상 중 하나다. 매년 자동차·운송, 디지털 인터랙션, 디자인 전략 및 브랜딩 등 다양한 부문에서 혁신적인 디자인을 선정한다. [끝]